

제1차 UN ESCAP 통계소위원회 회의 참가 결과

UN ESCAP Subcommittee on Statistics  
Bangkok Thailand, 18~20 February 2004

2004. 3

통 계 청

NATIONAL STATISTICAL OFFICE

# 차 례

## I. 출장개요

## II. 제1차 UN ESCAP 통계소위원회 회의

1. 회의개요
2. 회의일정
3. 회의 주요내용
4. 대표단 활동

## III. 회의자료 요약

## I. 출장개요

1. 출 장 자 : 김해수 통계기획국장(수석대표)  
우사임 사회통계과 사무관
2. 출장목적 : 제1차 UN ESCAP 통계소위원회 회의 참가
3. 출장기간 : 2004. 2. 17 ~ 2. 22
4. 출장지역 : 태국 방콕 소재 United Nations Conference Center(UNCC)

## II. 제1차 UN ESCAP 통계소위원회

### 1. 회의개요

- 회의목적
  - 공식통계의 주요현안 검토
  - 장애인통계, 보건통계, 성인지적 통계 등 사회통계와 빈곤측정이슈, 빈곤통계에 대한 지역사업계획 등 빈곤통계, 그리고 경제통계 현안에 대한 보고 및 논의
  - 사무국의 활동보고와 중장기 프로그램 계획 및 평가
  - 기타 고위 공식통계인 포럼의 운영 등 논의
- 회의주관 : UN ESCAP (유엔 아태지역 경제사회위원회)  
United Nations Economic and Social Commission for Asia and Pacific
- 회의기간 : 2004. 2. 18 ~ 2. 20
- 회의장소 : UNCC 제3회의실
- 임원선출
  - 의장 Mr. Dannis Trewin(호주)
  - 부의장 Mr. Timoci bainimarama(피지), Mr. A.G.W. Nanayakkara(스리랑카)
  - 서기 Mr. Frederic W.H. Ho(홍콩)
- 참 가 자 : 119명  
한국 등 27개국 대표 81명, UN ESCAP 21명 등 국제기구 38명  
한국 : 김해수 통계기획국장, 우사임 사회통계과 사무관

## 2. 회의일정

### <2004. 2. 18 (수)>

- 08:00 - 9:00 등록
- 09:00 - 9:30 개회식, 임원선출, 의제채택
- 09:30 - 10:15 공식통계의 주요 현안
- 10:15 - 10:30 휴식
- 10:30 - 12:00 사회통계  
장애인통계, 보건통계, 성인지적 통계
- 12:00 - 13:30 점심
- 13:30 - 16:30 빈곤통계  
빈곤측정이슈, 빈곤통계에 대한 지역사업계획

### <2004. 2. 19 (목)>

- 09:00 - 12:00 경제통계  
비공식노동과 비관측경제, 소기업조사, 국제비교프로그래밍(ICP), 정보사회측정
- 12:00 - 13:30 점심
- 13:30 - 17:00 통계 훈련  
사무국의 활동보고  
증장기 프로그램 계획과 평가  
기타

### <2004. 2. 20 (금)>

- 10:00 - 12:00 서비스중심의 국가통계(비공식)  
자료의 접근, 분석 및 배포
- 12:00 - 14:00 점심
- 14:00 - 16:00 보고서의 채택(초안은 1시에 배포)

### 3. 회의 주요내용

#### ○ 공식통계의 주요 현안

- 인구통계와 센서스에 IT기술의 이용경험과 계획, 인구이동통계, 노동 및 가구소득지출조사 등 경제통계의 그늘에 있는 사회통계등을 설명하였고, 국민계정과 관련하여 93SNA의 이행과 그의 보완, 농림어업 통계, 상품과 서비스에 대한 국제무역통계, 정보사회통계 등을 공식 통계의 주요 현안으로 설명
- 사회통계의 현안으로 인구와 빈곤 관련 사업계획에 관하여 정부 임무와 정부와 국제 데이터 이용자간 협조 등을 설명하였고, 인구주택 총중사의 현재 수요와 향후 전망에 대한 심포지엄 개최(2004) 및 토론그룹 구성, 2000 센서스 성공 실패에 대한 기술보고서 작성, 인터넷 이용 등 센서스 데이터 배포에 관한 핸드북(2006), ILO가 인구총조사의 경제 관련 사항에 대한 핸드북을 작성중이고 소비자물가지수와 가구소득지출조사의 국제기준이 검토되고 있음을 설명
- 경제통계의 현안으로는 국민계정의 1993 SNA 업데이트 범위(UNSC)에 대한 결정, 국민계정에 대한 실무반 구성, 비공식 경제활동 사례 정리(ECE), 3차 농업통계세계대회(2004.11.), 수출입가격지수 매뉴얼 작성(IMF), ICT개발지수, 디지털 디바이드, ICT 관련 성인지적 지표 등을 소개
- 공식통계의 기본원칙(유엔)에 의거 국별 통계활동 자체 평가가 요청되었고, 국제기구의 통계활동에 대한 원칙 선언이 검토 중이라는 것과 국제기구들의 통계정보 시스템과 서비스의 주요 개선 현황, MDG 지표와 관련하여 개도국의 통계능력 개발 관련 선진국들의 지원, 국제적 지침 등을 설명
- 위원회는 소비자물가지수와 가계수지조사의 국제기준 개정을 포함한 노동통계회의의 결과를 환영하고 가계수지조사는 빈곤통계에 있어 가장 중요한 조사로 이 개정은 가계조사의 계획을 더 유용하고 빈곤의 이해를 돕게 될 것을 언급하였으며, 아울러 금년 10월에 마닐라에서 개최될 공식빈곤통계 국제회의에 관심을 표명

- 사회통계 : 장애인통계, 보건통계 및 성인지적 통계
  - 장애인통계 : 사무국에서 Biwako Millenium Framework이 장애 관련 데이터 수집과 국가별 장애인통계 개발 권고 등 개요를 발표
  - 개념적인 수준에서 UN(2001)기준과 WHO(ICF 2002)기준의 국제 가이드라인이 있는데 ICF는 여러 가지 용도로 활용될 수 있는 다목적 분류로 복잡한 동시에 유연하다는 점을 언급
  - 위원회는 사무국과 WHO를 포함한 국제기구 및 지역기구들에 의해 이루어진 장애인 측정 노력을 지지하였고, UNSD는 ESCAP의 장애 프로젝트와 장애인 측정 분야에 노력결과를 알렸음
  - 홍콩 등은 센서스에 의한 장애인통계가 저평가되는 경향이 있음을 언급하였고 가구조사의 통계는 장애에 대한 인식의 차이에 따라 여자가 더 저평가되는 경향이 있음을 언급. 등록통계는 일반적으로 특별한 장애만을 다루는 경우가 많아 불완전한 장애인 통계가 되는 경향이 있음. 위원회는 자료별로 장단점이 있으며 자료의 신뢰성을 검토하여 활용할 것에 동의하였고 특별조사의 필요성도 일부 언급
  - 보건통계 : 보건통계의 통계위원회인 FOC(Friends of the Chair)의 발표
  - 위원회는 WHO와 지역기구의 협력이 필요하며 WHO, UNSD, NSOs 등의 실무반 구성을 제안하였고 홍콩은 조류독감과 같은 긴급사안에 대한 자문모임의 필요성을 언급
  - WHO는 ICD, ICF 분류 등 개발하여 제공했으나 기타 관계기구와의 협의는 부족. WHO 대표는 강한 국가적, 지역적, 국제적 협력의 필요성에 동의하고, 보건지표를 위한 자료가 국제기구들에 의해 제공되고 있고 천년개발목표들(MDGs)은 협력증진에 유용할 수 있음을 제안
  - 성인지적 통계 : ESCAP의 핸드북 '무임금노동의 국가정책 반영'에 대한 발표와 토론이 있었고 ESCAP의 성인지통계에 대한 현재와 미래 계획에 대한 발표와 토론이 있었음
  - 위원회는 성인지의 과정에서 통계의 성별 제공은 작업의 일부라는 사무국의 시각을 지지하였고, 사무국에서 각 나라의 성인지 통계자료에 대한 지역 성인지 책자의 발간(2005년)을 준비하고 있다는 것을 알림

- 성평등에 대한 자료가 시간활용조사가 유일한 것은 아니나(ECO) 위원회는 시간활용조사가 무임금노동 등 성평등을 위하여 유용한 자료이며 비용이 많이 들지만 유럽의 예에서와 같이 보다 적은 비용으로 가능한 방법등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을 제안
  - ILO는 1993SNA에서 도입된 경제활동개념으로 무임금 생산활동이 지역내 많은 나라에서 아직 노동력조사에 반영되지 않아 노동력조사 결과와 시간활용조사결과와 차이가 발생하고 있음을 언급하였고 경제활동정의에 따른 1993SNA 생산범위는 국제적으로 아직 널리 적용되지 않고 있다는 점을 인정
- 빈곤통계 : 빈곤측정이슈, 빈곤통계에 대한 지역사업계획
- 빈곤측정이슈 : 빈곤통계향상을 위한 패널조사에 대한 사무국의 발표와 태평양지역입장에서의 빈곤측정, 빈곤측정 핸드북의 진행상황에 대한 UNSD의 발표가 있었음
  - 패널조사의 정의, 목적, 방법이 소개되었음. 프랑스, 네덜란드, 캐나다 등에서 패널조사가 실시되고 있는데 이를 통해 가계수지의 변화, 빈곤요인 등을 분석할 수 있으나 비용이 많이 들고 복잡하여 정확한 통계의 생산이 어렵다는 의견이 있었음. 현재의 통계환경과 시스템하에서 경험을 공유하고 최선의 방법에 대한 논의의 필요성이 제기됨. 호주에서는 국가통계기관에서 패널조사를 실시하는 경우는 드물고 이에 의한 정확한 통계생산이 어렵기 때문에 Cross-Sectional 자료를 가지고 코호트 분석 등이 더 효과적일 수 있음을 언급
  - 태평양지역에서는 빈곤이 단지 음식과 숙소로 측정되고 있고 상대적으로 빈곤이 심각한 문제는 아니지만 측정에 있어서는 비시장상품의 소비와 PPP의 조정 등이 문제임을 발표. UNSD는 빈곤통계 핸드북의 진행상황과 내용을 소개하였고 아태지역을 포함한 4개의 지역별 워크샵 등 향후 계획을 설명하였음
- 빈곤통계에 대한 지역사업계획 : 사무국의 자료 'ESCAP 지역의 빈곤통계향상을 위한 지역사업계획'에 대하여 논의
- 빈곤경감위원회에서 통계소위원회가 지역사업계획을 준비하도록 제안된 것으로 위원회는 이를 결정하여야 하는데 빈곤경감과 MDG를 위한 국가의 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하는 사업계획을 환영하였고 많

은 논의가 진행되었음. 위원회는 ESCAP 사무국이 사업계획을 발전 시킬 것을 결정하고 사업계획들의 우선순위를 부여할 것을 결정

- 경제통계 : 비공식노동과 비관측경제, 소기업조사, 국제비교프로그램 (ICP), 정보사회측정에 대한 발표와 논의가 있었음
  - 비공식노동과 비관측경제 : OECD에서 2002년에 비관측경제 측정 핸드북을 발간했다는 것과 2004년 5월 방콕에서 ‘비관측경제(NOE) 측정과 완벽한 GDP 평가를 위한 워크숍’이 개최될 예정이며 이 워크숍의 목적은 더욱 종합적이고 정밀한 국민계정, NOE 규모 관련 개선된 데이터, 자가소비용 가구생산의 집계 개선이며 한국 등 38개국의 사업체조사, 국민계정 고위 담당자가 참가할 예정임을 알림
  - 위원회는 비관측경제의 추정, 특히 불법생산에 대한 추정에 직면한 국가통계기관의 어려움을 인식하고 일부는 불법활동의 GDP 포함을 유보할 것을 표시하였고 국민계정의 질과 포괄범위의 향상을 위해 국제청 등과의 협력이 필요함을 나타냄
  - 베트남의 소규모 사업체조사에 대한 발표가 있었고 아태지역의 ICP에 대한 보고가 있었으며 정보사회의 측정에 대한 발표와 논의가 있었음. 위원회는 정보사회를 측정하는 지표체계가 정책적인 고려와 연계되어야 함에 동의하고 정보사회 측정의 종합지수는 보조적인 역할이어야 한다는 것에 동의하였음. 또한 위원회는 소프트웨어의 가치 측정에 대한 관심을 표명
- 통계훈련 : SIAP의 통계훈련 과정 및 현황에 대한 발표가 있었고 JICA의 통계수요조사 결과와 관련하여 위원회는 도교지역의 훈련과정에 대하여 회원국의 수요 표명을 촉구
- 사무국의 활동보고 : 13차 통계위원회(2002.11월) 이후 사무국 활동 소개
  - 데이터 수집 및 정보 배부, 각국의 통계발전 지원을 위해 자문 실시, 빈곤통계, 국민계정, 인구통계, 정보기술에 대한 자문, 경제통계 지역 자문역 신설 등을 보고하였고 자원현황에 대하여 통계처는 사무국에서 가장 규모가 작지만 배정된 전문직위 수는 약간 증가하였으나 천년개발목표로 인해 개발도상국에 대한 지원 필요성 커짐에 따라 외부지원 요청의 충족은 어려운 상태임을 설명

- 기타 : 통계소위원회의 향후 운영과 아태지역통계 포럼에 대하여 논의
  - 통계소위원회는 제1차 빈곤경감위에서 격년으로 개최하도록 결정하였고 아태지역의 고위 공식통계인 포럼(APEX : the high level forum of Asian and Pacific Statisticians)의 구성가능성을 논의. 제2차 통계소위원회는 2006년 개최될 예정임을 사무국에서 발표하였고 이에 대하여 논의
  - 위원회는 사업프로그램 세부 검토 및 위원회 결정사항 관련 ESCAP 사무국의 업무 모니터링을 위한 소위원회 사무국(Bureau) 설치에 동의하였고 APEX의 설치도 통계위원회 사무국의 세부검토 결과에 따르기로 함과 동시에 APEX는 역내 지역대표성 반영하여 6개 회원(국)으로 유지할 것을 제안하였고 위원회의 임원들이 추후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에 동의하였음
  
- 비공식 논의 : 서비스중심의 국가통계기관 주제로 비공식 논의가 있었음
  - 필리핀의 자료제공시스템, 조지아의 정치 중립적 통계, 호주의 원시자료제공제도, 홍콩의 응답자 보호문제 등에 대한 발표와 토론이 있었으며 특히 언론과의 관계에 대한 문제가 많이 제기되었고 관련정부기관과의 관계 문제 또한 제기됨
  - 언론과의 문제는 가능한 통계결과에 대한 설명으로 보완하고 기타 정부기관과의 관계는 서로 협력하는 관계를 유지하는 것 등이 제안되었으며 특히 원시자료 이용자의 오용에 대하여는 패널티의 명시 등을 활용할 수 있음을 설명(호주)

#### 4. 대표단 활동

- 한국의 시간활용조사 개요와 일정을 설명하고 경험을 공유할 것을 제안
- SIAP의 향후 훈련수요 및 훈련생의 역내 배정에 대하여 SIAP 소장, 이사국들과 논의하였음. SIAP이 JICA 조사와는 별도로 ESCAP 회원국의 훈련수요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는 것에 동의함
- 아시아 지역 대표들과 통계협력관계 유지 및 아시아 지역의 영향력 향상을 위한 노력의 필요 등 논의

### III. 회의자료 요약

#### <전세계 및 지역의 공식통계 주요 현안(의제4)>

- 유엔통계위, ESCAP, 통계조정위 관련 -

#### 1. 인구사회 통계

##### o 제5차 아·태 인구회의

- 인구와 빈곤 관련 사업계획, 정부 임무, 정부와 국제 데이터 이용자간 협조

##### o 인구, 이민 통계

- 2003년 UNSC(유엔통계위)에서 1998 국제인구이동통계 권고(제1판)에 대한 핸드북 작성 요청

- 2003 ECE-Eurostat 인구이동통계 워크샵에서 센서스2000을 인구이동통계로 활용가능성 검토

##### o 인구통계와 센서스

- 2003 UNSC 결정사항

. 인구주택총조사에의 현재 수요와 향후 전망에 대한 심포지엄 개최(2004) 및 토론그룹 구성

. 2000 센서스 성공 실패에 대한 기술보고서 작성

. IT 등 신기술 적용 관련 지침개발과 경험 공유 등

. 인터넷 이용 등 센서스 데이터 배포에 관한 핸드북(2006)

- ILO가 인구총조사의 경제 관련 사항 핸드북 작성중(2002년 기술보고서 참조)

- UNSD(유엔통계처)는 가계표본조사 설계 핸드북 작성중

##### o 노동통계, 가구소득지출통계

- 소비자물가지수와 가구소득지출조사의 국제기준 검토

- 비공식 고용, 성인지적 노동통계, 노동시간 조사, 아동노동, 장애인노동통계 등

##### o 기타 통계

- 교육과 훈련통계, 빈곤통계, 범죄통계, 보건통계, 국민보건계정, 성인지적 통계 등

#### 2. 경제통계

##### o 국민계정

- UNSC의 1993 SNA 업데이트 범위에 대한 결정, 국민계정에 대한 실무반 구성 등

- 국민계정에서 노출되지 않는 비공식 경제활동 사례 정리(ECE)

##### o 국민계정 : 비집계 경제-비공식부문

##### o 농림수산업 : 지속가능 농업지표 등을 위한 3차 농업통계세계대회(2004.11.2-11.4)

<ECE, Eurostat, FAO, OECD, ISI 공동 주관>

- 국제무역통계
  - 상품 : 국별 보고서 요청 예정(UNSD), 수출입가격지수 매뉴얼 작성중(IMF)
  - 서비스 : 서비스 DB시스템 개발(UNSD), 데이터집계 가이드 작성중(기구간 실무반)
- 관광통계
- 정보사회통계 : ICT개발지수, 디지털 디바이드, ICT 관련 성인지적 지표 등
- 화폐, 금융 및 보험통계 : 금융건전성 지표에 대한 가이드 작성중(IMF)
- 물가통계
  - ICP
  - CPI 매뉴얼안(ILO, 2003년 개정), PPI매뉴얼안
  - 2000년기준 지수 개편

### 3. 자연자원 및 환경통계

- 자연자원 및 환경 통계 : 방법론, 제도상 문제로 인한 환경통계의 복잡성. 기구간 실무반 구성
- 자연자원 및 환경 계정 : 런던그룹의 환경계정 핸드북(SEEA 2003) 개정 등

### 4. 상호 관련되는 통계 현안

- [공식통계의 기본원칙](유엔)에 의거, 국별 통계활동 자체 평가 요청
  - 국제기구의 통계활동에 대한 원칙 선언 검토 중
- 통계능력과 자원을 강화하기 위한 측정 : PARIS 21에 의해 16개(질적), 18개(양적) 통계능력지표 적용 등
- 통계서비스의 조직과 운영 : PARIS21의 실무반이 국가통계발전 계획 작성에 필요한 자료를 정의
- 국제통계기관간 조정 : 34차UNSC에서 통계활동조정위원회(CCSA) 결성=> 2003년 개최 2개회의 결과 보고
- 통계청 인력 개발
- 통계분류 : 2007년 ISIC 및 CPC 개정을 위한 2003년도 워크샵(방콕, 뉴델리)
  - CPC 이행국가 과소
- 데이터 수집 도구 및 교환 기준 : 통계 데이터 및 메타데이터 교환(SDMX) 프로젝트 등
- 데이터 품질 및 배포 구조 : IMF의 DQAF(Data Quality Assessment Framework), 25/50 프로그램 등
- 기술인프라 : 국제기구들의 통계정보 시스템과 서비스의 주요 개선 현황
- 지속 가능한 발전 : 지속 가능한 발전 통계 촉진위원회 구성을 계획 중
- 개발지표(일반) : PARIS21의 활동 등
- 개발지표(천년개발목표 지표)
  - 개도국의 통계능력 개발 관련 선진국들의 지원, 국제적 지침 등

## <장애인 통계(의제 5-a)>

1. Biwako 새천년 프레임워크 : 2005년까지 장애 관련 데이터 수집 및 국가별 개발

2. 개요

o 2002.11월 ESCAP 통계위

- UN지침, ICF(WHO 기준) 소개

o 2003.11. UN총회 결의안 개정

A. 아·태지역 장애인통계 결함사항

- 장애인 관련 조사가 없으며 부분적, 과편적인 데이터만 있음

- 정신적 장애, 경미한 장애인의 누락 가능성

- 통계적 목적으로 만든 데이터의 결핍·노후 및 국가별 비교 곤란 등

B. 장애인 정보 소스 검토

- 2003.9.23-26. 장애인데이터 개선 워크샵

. 대부분 센서스에서 자료 수집 => 장애인수 저평가

- 조사에 의한 자료 : 표본조사의 한계

- 국별 상이한 기준과 정의 적용, 국별 장애율이 1-18%로 분포되는 등 부정확

C. 국제기준 및 틀

- 유엔지침 활용 필요성

- ICF(WHO)를 위주로 함

. 의학적 모델 및 사회적 모델을 ICF에서 통합

. 통계, 연구, 의료, 보험 등에서 ICF 활용

. ICF를 통해 「장애인 기회균등에 관한 표준규정」 제정 추진 등

D. 권고

- 2003.9월 워크샵 : ICF와 UN지침이 주 의제

- SOS에 대한 권고

. 활용 가능한 형태로 적합한 정보 수집, 제공

. WHO ICF 준수 노력

. 차기 센서스라운드 활용

. 장애인 관련 센서스 및 조사의 원칙

- ESCAP과 SIAP에 대한 권고

. ICF 교육과정 필요성(통계 생산, 이용자 모두를 대상)

. 장애인 통계 포럼 구성

. 워싱턴그룹 주도 사업계획 작성 필요성

. 기술, 자금 지원

- 2004년 제2차 워크샵 구상

## <사회통계 : 보건통계(의제 5-b)>

- 34차 UNSC 결과에 따른 의장 자문단의 보고서 -

### o 배경

- WHO의 주도와 천년개발목표로 인하여 보건상태 측정의 국제비교 필요성 증대
  - . 국제간 조정은 미흡
  - . 국별 데이터 작성시 자체 수요를 우선으로 하며 국제비교성은 부차적 문제였음

### o 국가 통계청과 WHO간 상호이익 분야

- 데이터 수집, 데이터 분석, 통계 보고, 능력 구축
  - : WHO와 국가별 보건부간 협의 우선(통계청 참여 바람직)
- 보건조사 : WHO는 ICD, ICF 분류 등 개발하여 제공했으나 기타 관계기구와의 협의는 부족
  - . WHO에서 2000년 세계보건조사(WHS) 발족
  - . 보건부 위주로 진행되고 통계청은 제한적으로 간여함에 따라 방법론, 조정 관련 논의 부족 => 파편적인 통계가 생산되면서 비교성(comparable statistics) 저하
- 핵심 보건지표의 개발
  - . 보건지표 개발에 통계청의 적극적인 참여 필요(특히 측정방법, 데이터 품질 평가 등)

### o 공식통계의 구조와 통계청의 역할

- 1994 UNSC에서 [공식통계 기본원칙] 채택 : 기준, 데이터 수집, 비밀보호, 배포 등
- WHO는 표준 제정의 모든 단계에서 공식통계 기관(통계청)과 협조해야 하며 통계청은 (WHO에 보내는) 국별 통계 생산시 최소한 조정역할이라도 해야 함
- WHO 등은 국가별 공식 통계를 요청할 때 통계청을 창구하거나 통계청에 동시 통보해야 함

### o 기술적 자원 수요

- 개도국에 대한 기술 지원과 능력구축 문제, 가이드라인, 조정체제 등

### o 국제/국별 DB

- DB 내용의 명확한 분류, 세부 데이터 접근, 데이터 중복 방지를 위한 조정 등

## <사회통계 : 성인지적 통계와 무보수 노동(의제 5-c)>

### o 시간활용조사 권장

- 재정안전(financial security), 보건, 복지 등에 유용
- 1960년 이후 지역내 19국에서 95개 시간활용조사 실시(90년대이후 44, 2000년 이후 8개)
- 주요분야 : 무보수노동에 투입한 시간
- 「무보수노동을 국가정책에 통합하기 위한 지침서」 : ESCAP, UNDP 및 UNIFEM 작성

### o 시간활용 데이터 수집 이유

- 1960-70년대 선진국에서 시작 : 여성의 보이지 않는 무보수노동 측정 위함
  - . 무보수노동에 더 많은 시간 소요
  - . 무보수, 보수 노동을 통털어 여성이 더 많은 노동 부담
- 무보수, 보수 노동에 대한 시간 배분 정보를 통해 복지 관련 거시경제 효과 측정
- 측정 곤란한 노동 범주에 대한 정보 제공
  - . 무보수 가족노동, 가사노동, 임시직, 비공식분야 노동 등
- 여러 인구계층간 시간활용 비교

### o 시간활용통계란?

- 한 사회에서 여러 경합하는 활동간 시간 분배에 대한 정보 제공

### o 시간활용데이터 수집방법

- 일기식 기입, 면접, 관찰 등 3개 방법

### o 시간활용 통계 중 개인활동의 분류

- UN에서 시간활용 통계 중 개인활동의 국제분류(ICATUS)를 권고
  - . SNA 분류기준에 따름
- 가계 위성계정 작성 지원

### o 기타 검토사항

- 분석목표와 표본규모에 적합한 도표 계획(tabulation plan) 필요
- 기획단계에서 특정 이익집단이나 개인 또는 조직 참여 필요

## <경제통계 : 비공식분야 및 비집계 경제(의제 7-a)>

### o 개요

- 2004.5.11-14 기간중 방콕에서 [비집계경제(NOE) 측정과 완벽한 GDP 평가를 위한 워크샵] 개최 예정
- OECD에서 2002년에 비집계경제 측정 핸드북 발간

### o NOE의 유형

- 5개 유형 : 지하경제, 불법 생산, 비공식 생산, 자가소비용 가구생산, 집계상 결함에 의한 누락

### o NOE 측정전략

- 5개 범위 : 적정 개념틀 작성, NOE 관점에서 국민계정 평가, 경제활동 전체를 포함하도록 국민계정 집계를 개선, 기본적 데이터수집 프로그램 개선, 종합적인 NOE 측정전략의 실행

### o 2004.5월 워크샵 준비

- 주요 목표 : 더욱 종합적이고 정밀한 국민계정, NOE 규모 관련 개선된 데이터, 자가소비용 가구생산의 집계 개선
- 참가 예상국 : 한국 등 38개국의 사업체조사, 국민계정 고위 담당자

## <제1차 빈곤경감위원회에서 제기된 문제(의제 9-a)>

### o 주요 사항

- 천년개발목표를 위한 노력
- 분권화(decentralization)를 위한 개혁경험 공유
- 빈곤경감을 위한 개입 노력 : 정부와 ESCAP
- 견실한 빈곤 측정은 국별 통계시스템에 좌우 : 아태지역 사업계획(action plan) 필요  
. 통계소위원회에서 초안 작성
- 조사응답자는 국가통계의 고객이며 데이터 방법과 결과는 이용자 지향적이어야 함
- 가구조사 결과와 각종 사회경제 정보간 결합의 유용성 강조
- 대체 빈곤측정 수단의 개발과 관련 개념·방법론의 표준화를 위한 국제적 노력을 요청
- 개발목표를 모니터할 수 있는 행정정보 수집의 중요성

### <기타>

- 빈곤경감을 위한 예산과 자원의 동원을 위한 근거 데이터의 필요성
- 적정한 데이터 확보를 위한 국별 통계능력 구축 노력 필요  
: 사무국에서 2005년까지 보고서 제출  
. SIAP에서 UNDP 기금으로 관련 프로젝트 추진 계획
- 국가별 빈곤선과 세계은행의 1일 1달러 국제 빈곤기준선간 차이  
. 1달러 기준선 채택시 빈곤률 상승 가능성
- 빈곤경감과 통계 관련 ESCAP과 다른 국제기구, 단체(OECD, PARIS 21, 세계은행 등)간 협력 강조
- 2006-2009년 기간 중기계획에는 지역내 통계데이터 수집 개선에 대한 지원을 포함해야 함

## <부록> 빈곤경감위원회 보고 중 관련사항

- o 호주와 태국 통계청의 보고
- o 일국의 빈곤측정 수준은 국가통계시스템에 좌우
- o 좋은 통계데이터는 좋은 정책과 기획을 위한 투자로 볼 수 있음
- o 태국의 경우 빈곤분석을 위한 주요 데이터원은 가구 사회경제조사
  - 패널조사 도입으로 빈곤데이터 수준 개선

- 사무국 보고서에 대한 검토
  - 정책과 분석을 위한 빈곤 데이터의 개선방법
  - 국별 통계인프라 강화와 품질 제고
  
- 필리핀의 2004.10월 공식 빈곤통계 국제회의 유치를 환영
  - 공식 빈곤측정 및 빈곤통계 작성을 위한 장치 마련 협의 등
  
- 정책입안자와 일반 대중의 국가 통계청에 대한 지원이 중요
  - 통계서비스에 대한 자원배분과 응답률 제고 등
  
- 통계시스템 발전을 위한 통계 데이터 이용의 편의성 및 이용자로부터 환류의 중요성
- 데이터 수집원(메타데이터) 공개를 통한 투명성 제고
  - 자료의 한계와 정확성에 대한 정보 제공 및 언론의 적극 활용
  
- 장기적인 데이터 확보를 위한 패널조사의 유용성 강조
  - 가구조사에서 연동표본 채택시 조사시스템 재설계 필요
  - 가구조사 결과와 사회경제적 정보의 결합 유용성 강조
  
- 과소표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ESCAP의 최신 표본기법 제공 필요성
- 소득빈곤 측정이 주이나 노동력조사 등 다양한 접근법의 채택도 증가 중
- 국제비교를 위해 사용되는 1일 1달러 빈곤선의 대안 모색
  
- UNSD에서 2005년까지 빈곤통계 지침서 발간 예정
  - 통계소위원회 토론 등을 통해 ESCAP에서도 상당한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임
  
- 시간활용조사를 하는 국가가 증가 중이며 그 중요성을 감안 ESCAP에서 계속 지원
- 행정정보 데이터의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으며 통계청은 해당 행정기관과의 밀접한 협조 필요
  - 해당 기관들을 귀중한 고객으로 대우하는 한편 업무에 유용한 자료 제공
  
- 지역내 35개 회원국이 ICP에 참여하여 PPP를 개정하고 있음
  - PPP는 1일 1달러 기준을 통한 국제, 국내 생활수준 비교에 매우 중요

## <사무국의 주요 통계활동(의제 9-b)>

1. 개요 : 13차 통계위원회(2002.11월) 이후 사무국 활동 소개

### 2. 통계정보서비스

- 데이터 수집 및 정보 배부
  - 아·태통계연보 등 4종 발간
  - 유엔상품무역 통계 DB(Comtrade) 온라인으로 제공
  - 외부용역으로 현재 자체 출판체계 분석 : 2004년부터 개선작업
- 뉴스레터 : 2004년부터 온라인으로는 분기 발간하되 인쇄물은 연 1회 발간
- 이용자 조사 : 현재의 설문조사는 효력이 떨어졌다고 보아 새로운 방법 모색

### 3. 통계 발전

- 각국의 통계발전 지원을 위해 자문 실시, 기술·전문가회의, 훈련 워크샵 등 개최
- 정보·경험 교환, 표준 제정 작업, 국제·국별 기관과의 협조와 연락 등
- 자문 및 전문가 지원 서비스
  - 빈곤통계, 국민계정, 인구통계, 정보기술에 대한 자문. 경제통계 지역자문역 신설
  - 사무국내 자문역은 감축 중 : 따라서 자문건수 감소 추세
- 기술회의 및 기타 그룹 활동
  - UNSD, UNIFEM, ADB, OECD와의 공동 주관을 통한 회의개최 증가 추세
- CD 및 기술 관련 출판
  - 2003.9. 장애인데이터 워크샵에서 CD롬 자료 제공
  - 무보수노동의 국가정책 통합에 관한 지침서 발간(2003)

### 4. 자원 현황

- 자원 가용성
  - 통계청은 사무국에서 가장 규모가 작지만 배정된 전문직위 수는 약간 증가 . 예산외 인원까지 2004.1월 현재 총 25명(외부지원 예산 감소 중)
  - 정규인원 정체, 예산외 인원 감소 등으로 외부지원 요청 충족 곤란 . 각국 통계청의 단기전문가 파견 접수(2002년 이후 호주 등에서 협력)
  - 천년개발목표로 인해 개발도상국에 대한 지원 필요성 커짐 : SOS의 지침 기대
- 자원 활용
  - 자문서비스에 가장 많은 시간 투입(1/3 이상)  
. 정보 수집·배포, 회의운영 활동의 비중 비슷

## <소위원회 향후 회의 운영(의제 11)>

- 제1차 빈곤경감위에서 SOS는 격년으로 개최하도록 결정
  - 다른 공식통계 고위급 회의 : APEX(the high level forum of Asian and Pacific Statisticians)
  - 제2차 SOS는 2006년 1/4분기중 개최(잠정)
  - 의제는 3개 주요 위원회(빈곤경감, 세계화, 지역현안)의 결과에 영향을 받음
  - 빈곤경감위 위임에 따라 사무국의 통계 활동 검토 및 위원회에 대한 의견 제시
  
- 사업프로그램 세부 검토 및 SOS 결정사항 관련 ESCAP 사무국의 업무 모니터링을 위한 소위원회 사무국(Bureau) 설치여부 결정
  - 2002년말 해산한 통계위원회 뷰로의 경험에 비추어 비회기 기간중 지침, 계획 수립 등 역할
  - 2004년말이나 2005년초 개최 예정인 APEX의 설치도 통계위 뷰로의 세부검토 결과에 따름
  
- 구성(안)
  - 역내 지역대표성 반영, 6개 회원(국)으로 공식 국가대표 자격 부여
  - 임기 4년으로 위원회나 실무반 구성